

한국어 동사와 명사 사이의 하위범주화에 있어서의 평행성

노용균
충남대학교

No, Yongkyoon. 1997. Parallels between Korean verbs and nouns in subcategorization. *Language and Information*. Nouns in the Korean language are subcategorized for various frames (called SUBCAT lists) in much the same way as verbs are. Assuming a monostratal grammar and building on analyses of various 'little elements' as clitics, such as the ones given by No(1991), Chae(1995,1996), and Oh(1991), I delineate the ranges of SUBCAT lists for the Korean verbs and nouns and show that the two word-classes have heavily overlapping frames. Twenty five SUBCAT lists are identified for verbs, and twenty four for nouns, of which twenty three find associated lexical items in both. By way of justification, I offer analyses of noun--verb collocations in terms of the new five-valued syntactic feature COLLOC along with SUBCAT, which subsume 'light verb' constructions. It is hoped that this work will have given clear syntactic underpinnings to those who are concerned with practical lexicograph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1. 서언

현대 통사 논의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는 소위 보충어라는 구성소들과 부가어라는 구성소들 사이의 차이이다. 보충어는 개개의 어휘소와 결합하는 성분이고 부가어는 구와 결합해서 더 큰 구를 이루는 성분이다. 따라서 심성사전에는 어휘소 하나하나에 대해 각각 어떤 보충어와 결합하는지가 명세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부가

어의 분포는 통사 부문의 일반적 규칙에 의해 결정되고, 통사규칙에 부합하지만 수용 불가능한 문장을 초래하는 부가어는 통사 부문과 별도로 존재하는 의미해석 부문에 의해 점검되므로 부가어는 사전의 구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가정한다. 이 두 가정은 넓은 범위의 상이한 문법 프레임워크들 사이에 공유되어 있다.

심성사전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는 어휘소들과 각 어휘소의 보충어들에 관한 정보는 구체적인 형태를 띠는 실용 사전에도 기재되는 것이 보통이다. 과학적 탐구의 역사가 긴 언어들을 위한 사전은 그런대로 만족스러운 하위범주화 정보를 각각의 어휘소에 대해 담고 있다. 탐구의 역사가 한 세기밖에 되지 않는 한국어의 경우에도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조금씩 반영되어 실용 사전은 약간의 하위범주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홍재성 등(1997)의 시도가 이런 사전의 현 상황을 잘 보여 준다.

이 글에서 필자는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어 이해의 자동화 등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한국어 사전에 제공하여야 할 동사의 하위범주화 정보의 범위를 확정하고 이를 명사의 하위범주화 정보와 비교해서 한국어 통사 기술의 정교화를 향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한국어 문법에 관한 일반적 가정

2.1 낱말 부류

한국어에는 동사와 명사, 그리고 관형사, 후치사, 특수 조사, 부사가 있다고 가정한다. 그 밖에 해당 낱말의 수가 하나 뿐인 낱말 부류들도 몇 개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주어의 수를 표시하는 **들**, 듣는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 받는 **요**가 그런 범주에 속한다. 형용사라는 부류는 없으며, **예쁘**, **귀엽**, **착하** 등의 낱말은 모두 동사에 포함 시킨다. **학생입니다**, **천사지요** 등에 들어 있는 동사는 어간이 둘인 낱말로 보며, 이 낱말의 통사적 성질은 동사 **같**과 **답**의 성질과 대체로 일치한다. 엄정호(1989)와 Oh(1991)가 이 낱말을 빌붙어(clitic)로 규

정하는데, No(1991)의 견해도 이와 일치한다. 후치사에는 **이/가, 을/를, 예, 에서, 하고, 한테, 으로/로, 처럼, 부터, 까지** 등이 있고 특수 조사는 후치사와 무관한 범주로서 **는, 도, 만, 이야/야, 조차** 등을 포함한다.

2.2 구 범주

굴곡을 하는 유일한 한국어 낱말 부류는 동사다. 명사는 굴곡을 하지 않는 범주이며, **학생을, 학생이, 학생한테**는 모두 후치사구고 명사구는 아니다. 특수 조사는 피사체(projection)가 없는 어휘 범주다. **학생도, 학생은, 학생만**은 구성성분 두 개의 나열이지만 단일한 구성성분이 아니다.

2.3 부가어

낱말은 각종 피사체(projections)를 갖는데, 낱말의 피사체들 중에는 귀환범주(recursive category)가 있다. 투사 정도(Bar level)를 설정하는 X-Bar이론에서는 보통 일도(one Bar)인 범주를 귀환범주로 본다. 이 귀환 범주와 결합하는 구성소를 부가어라고 한다. (Radford 1988:175-179, 187-196, 231-258; Borsley 1991: 61-65)

중요한 명사류 성분의 명시적 등장이 요구되지 않는 한국어에서는 보충어를 부가어로부터 구별하는 일이, 중요한 명사류 성분의 명시적 등장이 요구되는 언어에서보다 더 어렵다.¹

통사 부문에서 명시적 등장이 요구되지 않는 성분들조차 머리인 낱말의 보충어일 수가 있다고 보면 한국어에 있어서의 보충어/부가

¹통사 부문에서 반드시 등장해야 하는 논항을 Pustejovsky(1995:64)는 순정 논항(true argument)이라 한다. (주어를 제외한) 순정 논항만을 보충어라고 본다면 한국어에서 보충어를 갖는 낱말은 **대로, 만큼, 쯤, 가량, 명, 마리, 개** 등의 명사 일부와 **이/Ø, 갈, 답** 등 극소수의 동사, 그리고 모든 후치사에 머문다. **보, 주, 놓, 버리, 대, 쌀, 싹, 하, 앉₁, 앉₂** 등과 같이 동사구와 함께밖에 쓰이지 않는 조동사들도 이 정의에 따라 보충어를 갖는 낱말들이다.

어 구별의 유일한 통사적 기준은 귀환성의 존재 여부다. 즉, 어떤 구성소가 귀환범주와 결합하면 부가어고 낱말인 머리(lexical head)와 결합하면 보충어다.

명사류 부가어로는 관계절과 명사구, 후치사구가 있고 동사류 부가어로는 부사절과 명사구, 후치사구, 동사구가 있다. 동사의 피사체인 문장이 명사류 부가어일 경우에는 그 문장의 머리인 동사가 특정한 굴곡형으로 나타난다. 이 동사는 접미사 **는/은/ㄴ, 은/ㄴ, 던, 었던, 을/르, 있을/았을/쓰을** 가운데 어느 하나를 갖는다. 명사구가 명사류의 부가어인 경우는 명사구가 보충어인 경우로부터 체계적으로 구분되는데, 이 구별 중에서 일부는 (최경봉(1996)의 “논항 관계 구성”과 “집합 관계 구성” 사이의 구별처럼) 용이하게 행해질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구별은 매우 섬세하다.

- (1) a. 철수 어깨에는 개구리 한 마리가 앉아 있어.
b. 철수 앞에는 개구리 한 마리가 앉아 있어.

이 두 문장에 등장하는 명사구 **철수**는 각각 부가어와 보충어로서 그 통사적 기능을 달리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어깨**가 가리키는 존재가 어떤 몸체나 그 주인을 필연적으로 상정하지 않는 데에 반해서 **앞**이 가리키는 존재는 필연적으로 어떤 물체와 그 물체의 놓인 방향을 상정하기 때문이다. 신체의 일부를 가리키는 낱말들의 해석에는 그 신체의 소유자의 존재가 전제되지 않으나 **앞, 뒤, 옆, 아래, 위** 등과 같은 화시적 표현(deictic expression)의 해석에는 화용론적 원점(pragmatic zero point)의 존재가 전제된다.² 문장이 동사류 부가어일 경우에는 그 문장의 머리인 동사가 역시 특정한 굴절형으로 나타

²관계를 가리키는 명사들(relational nouns)도 화시적 표현과 마찬가지로 화용론적 원점의 존재를 전제한다. **동생, 친구, 이웃, 담당자** 등은 따라서 보충어를 갖는 명사들이다. 보충어를 갖지 않는 명사와 보충어를 갖는 명사 사이의 차이 중 하나는 (i) **이웃이라는 이웃은 다 만나 봤어**와 (ii) **코라는 코는 다 닿겨 봤어**의 해석의 차이에서도 드러난다. 답화의 영역 안에 있는 개체가 a, b, 그리고 c인 경우에 (ii)에 대해서는 'a의 코와 b의 코와 c의 코를 다 닿겨 봤어'의 해석이 자연스러우나 (i)에 대해서는 'a의 이웃과 b의 이웃과 c의 이웃을 다 만나 봤어'라는 해석은 안나온다.

난다. 접미사 **어서/아서/서, 으니까/니까, 더라도, 어도/아도/도, 도록** 등이 그런 꼴에 채택된다.

명사구와 후치사구가 부가언지 보충언지는 당해 통사 환경 안에서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일반화는 미리 할 수 있다. 먼저, 등장이 요구되는 명사구는 보충어다. 동사 **같, 답, 이/Ø**와 결합하는 명사구는 이들 어휘소의 보충어다. **쯤**이 낱말이라면, 이 낱말은 명사구가 선행하는 것을 요구하는 낱말이다. 즉, 단독으로 등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십만 원 쯤**에서의 **십만 원**과 같이 이 낱말과 결합하는 명사구는 이 낱말의 보충어다.

후치사구에는 후치사가 당연히 들어 있고, 이것의 의미가 명백히 부가어가 전형적으로 갖는 의미인 경우가 많다. 특히, 일부 후치사는 늘 부가어적 의미를 갖는다. **보다**와 **처럼**이 그 예다. 다수의 후치사는 다의성을 띠는데, 일부 의미만 부가어에 합당한 의미다. **에서**가 사건 발생의 장소를 뜻할 때 이 낱말이 머리인 후치사구는 부가어다. **에**가 사건 발생의 시각을 뜻할 때 이 낱말이 머리인 후치사구는 부가어다. 그리고 도구를 가리키는 **으로/로**를 머리로 갖는 후치사구는 부가어다. 이런 후치사구들 말고도 원인, 방식 등의, 부가어 특유의 의미를 갖는 것들은 부가어다. 다음 예들이 그것이다.

- (2) 너 때문에
- (3) 비가 오는 바람에
- (4) 의외로
- (5) 일대일로

동일한 후치사가 보충어를 형성하는가 하면 부가어를 형성하기도 하므로 때로는 동일한 후치사구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6) 앞으로는 그걸 당기지 마.

이 문장이 갖는 두 가지 해석 중 하나는 **당기**의 보충어 **들이** 명시적

으로 등장하는 경우의 해석이고 (이 경우에는 **앞으로**가 **당기**의 보충어고) 다른 하나는 후치사구 **앞으로**가 부가어인 경우의 해석이다. 부가어로서의 **앞으로**는 ‘발화 시점 이후에’라는 시간 관련 의미를 갖는다.

2.4 생산성이 낮은 통사 규칙

통사 규칙들은 맥락 자유 문법(Context Free Grammar)의 규칙들이라고 가정한다. 이 규칙들은 각각 어떤 중간 교점(nonterminal node)이 종착교점들(terminal nodes)과 중간교점들의 합집합에서 취한 교점들의 나열로 분석됨을 의미한다. X-bar 이론과 일반화 된 구구조 문법(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에서 강조하는 투사 정도(projections)나 직접 지배와 순서 사이의 분리 등은 다수 규칙들에 대한 일반화인데, 필자는 이러한 일반화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규칙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를 조금 달리 표현하면, 구구조 규칙들 중에는 생산성이 높은 것들이 있는 반면에 생산성이 낮은 것들도 있으며, 생산성이 낮은 규칙들은 생산성이 높은 규칙들에 공유되어 있는 어떤 성질을 결여할 수 있다. 생산성이 낮은 규칙들의 한 부류는 종착 교점을 한꺼번에 둘 이상 도입하거나 중간 교점을 도입하지만 그 중간 교점의 내부 구조에 추가적인 제약을 가하는 규칙들이다.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규칙의 예로 (7)을 들 수 있다.

(7) $S \rightarrow S[VFORM, 지] Postp[1] V[13]$

이 규칙은, Postp[1]이 주격 조사를 나타내고 V[13]이 상태 동사 **앉**을 나타내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인가해 주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8) 철수도 바쁘지가 않습니다.

구구조 규칙 (7)은 어휘 범주 두 개를 도입하므로 잘 알려진 모든 X-bar 이론들의 관점에서 볼 때 있을 수 없는 규칙이다. 이것은 Kornai and Pullum(1990)의 최대투사체 원리를 위반하는 규칙인 것이다.³ 문장 (8)의 **철수도 바쁘지**를 명사구로 간주하고 **철수도 바쁘지가**를 후치사구로 보면, 최대 투사체 원리는 준수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문제점을 갖는 규칙이 탄생한다.

(9) S → PP[LCLASS, 1] V[13]

이 규칙은 아래의 낱말 연쇄체들이 문법적인 문장들이라고 그릇된 예측을 한다.

- (10) a. *내 동생이 않다.
 b. *철수도 바쁜 게 않습니다.

이런 예측을 피하면서 최대 투사체 원리를 준수하려면 규칙 (9)은 후치사구의 내부 구조를 더 자세히 명세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규칙은 위에서 생산성이 낮은 규칙들의 두 번째 부류로 든 것들의 성질을 갖게 된다.

생산성이 낮은 규칙의 또 하나의 예는 아래 문장들 안에 등장하는 부가어들을 담당하는 규칙이다.

- (11) a.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쳤군.
 b. 이 일을 계기로 회사가 발전하길 바랍니다.

필자가 지향하는 단층문법(monostatal grammar)에서는 “생략”이나 “탈락” 등의 개념이 설 자리가 없으므로 (11)의 문장들은 (12)의 문장들과 각각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중시하더라도, 이 문장들

³최대 투사체 원리는 “머리 이외의 모든 교점은 최대 투사체(maximal projection)라야 한다”고 하는 원리다

이 통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 (12) a.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뭉쳤군.
 b.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회사가 발전하길 바랍니다.

각 쌍의 문장들이 보이는 동의성은 통사적 장치가 아닌 의미해석 규칙으로써 포착해야 할 것이다. (11)의 부가어들, 즉 지도자를 중심으로와 **이 일을 계기로**를 단일한 구로 간주해야 할 것 같은데, 외부적 통사 기능을 중시해서 이 것들을 ADVP라고 명명하면 규칙 (13)에 의해 그 내부 구조가 규정된다.

(13) ADVP → PP[LCLASS, 2] PP[LCLASS, 5]

이 규칙은 Kornai and Pullum(1990: 28-29)이 계승 원리(principle of succession)라 부르는 원리를 어기고 있다. 어머니 교점을 ADVP가 아닌 PP로 보아도 동일한 문제가 남는다. 계승의 원리를 준수하는 규칙으로 바꾸자면 (14)나 (15)와 같은 것이 될텐데, 이들 각각은 또 다른 문제를 갖는다.

(14) PP → PP[LCLASS, 2] NP P[LCLASS, 5]

(15) PP → NP P

규칙 (14)와 (15)는 화살표 왼 편에 있는 교점보다 투사 정도가 1만큼 더 적은 교점이 화살표 오른 편에 하나 있으므로 계승의 원리를 따른다. (11)의 부가어들을 규칙 (15)가 제공하는 구조로 분석한다는 것은 **지도자를 중심**과 **이 일을 계기**를 각각 단일한 구성 성분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들이 단일한 성분을 이룬다는 독립된 증거가 없다. 규칙 (14)가 제공하는 구조를 가정하면 어휘 범주인 후치사가 보충어를 두 개 가질 수 있는 범주라고 함께 가정해야 하며 보충어들의 순서도 고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장 (11)의 부가어들이 갖는 구조를 (13)의 규칙으로 생성하건 (14) 또는 (15)의 규칙으로 생성하건 간에, 그 규칙은 여너 규칙들과는 다른 특성을 듬뿍 갖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X-bar 이론이 가능한 맥락자유언어의 범위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후자의 성질들 중에서 바람직한 것들을 다수 잃어버리게 하는 방향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X-bar 이론에 집착해야 할 이유가 없다(Kornai and Pullum 1990: 47).

2.5 명사구와 후치사구의 변동

후치사구 중에서 목적격 **을/를**을 머리로 갖는 것들은 모두 보어인데 이 것들은 통사 의미상의 영향 없이 모두 명사구로 대체될 수 있다. 따라서 목적격 후치사구를 보충어로 갖는 모든 낱말은 명사구를 보충어로 갖기도 한다. 주격 **이/가**를 머리로 갖는 후치사구들은 주어거나 보충언데 이들도 통사 의미상의 영향 없이 모두 명사구와 호환 관계에 놓인다. 수용 가능성이 영향을 입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문단 안에서의 담화 구조에 기여하는 방식이 후치사구와 명사구의 경우에 다르기 때문이다. 주격/목적격 후치사구와 명사구 사이의 변동은 극도로 생산적인 변동이라서 관용어들에서도 제약 없이 성립한다.

- (16) 음팍 바가지를 썼지.
- (17) 음팍 바가지 썼지.
- (18) 짹이 노란 회사야.
- (19) 짹 노란 회사야.

(17)이 (16)와 마찬가지로의 관용어로서의 해석을 갖고 (19)도 (18)과 동일한 관용어적 해석을 갖는다.

2.6 하와 뒤의 변동

보충어를 갖는 명사들 중에서 상당수는 동사 **하**와 특별한 관련을 갖는다. 이 명사들이 자신의 보충어인 후치사구들과 함께 나타날 때에는 동사 **하**가 뒤따라야 한다.

(20) 중고 피아노를 영희한테서 십만 원에 매입을 했어.

(21) *중고 피아노를 영희한테서 십만 원에 매입이 너무 일렀어.

(22) *우리는 중고 피아노를 영희한테서 십만 원에 매입을 반대했어.

(23) *중고 피아노를 영희한테서 십만 원에 매입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빈 털털이야.

명사 **매입**의 보충어가 후치사구 세 개, 즉 **을/를**이 머리인 후치사구와 **한테서**가 머리인 후치사구, 그리고 **에**가 머리인 후치사구라면, 이 명사와 그것의 보충어인 후치사구들은 명사구를 이룬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낱말 연쇄체 (21)이 비문법적인 연쇄체라는 사실은 **매입**을 머리로 갖는 명사구가 주어 위치에 등장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22)가 정문이 아님은 이 명사구가 후치사 **을/를**의 보충어가 될 수 없음을 뜻하는 듯하다. 이 명사구가 명사 **때문**의 보충어일 수 있다면 (23)은 정문일 것이다. 이 명사구의 분포에 심한 제약이 있음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일견 이런 곤혹스럽게 하는 일련의 사실들은 **매입**과 **하**를 별도의 낱말로 다루지 않고 **매입하**를 단일한 낱말로 여김으로써 깨끗이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방안이 곤경을 몰고 옴은 이미 채희락(1996:424-426)에 의해 상세히 지적되었다. 필자는 여기에서 채희락의 논점들을 되풀이 하지 않는다. 오히려 필자는 소위 서술 명사라는 것의 낱말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는 추가적인 증거를 찾고자 한다.

을/를이 머리인 후치사구를 보충어로 또는 보충어들 중의 하나로

갖는 명사들의 대다수는 특별한 동사 **되**의 보충어인 후치사구 안의 명사구의 머리일 때에 문제의 이 보충어가 제외된 것 만큼을 보충어로 갖는다. 동사 **되**를 머리로 갖는 동사구는 **되**의 보충어 안에서 결여된 후치사구에 부여될 선택제약(selectional restrictions)을 자신의 주어에 부여한다. 아래 연쇄체들을 고려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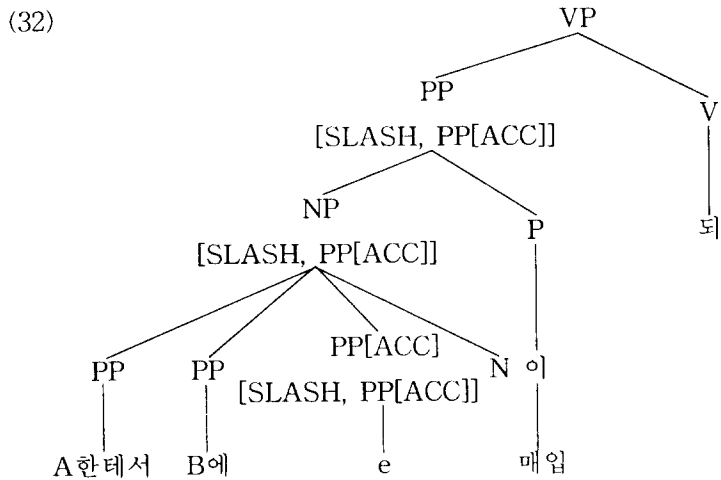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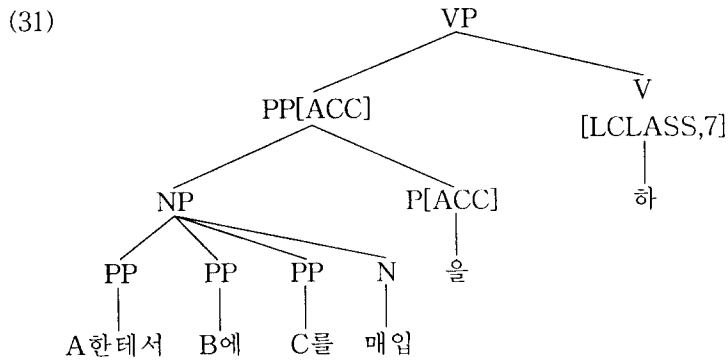
- (24) 우리는 중고 피아노를 영희한테서 십만 원에 매입을 했어.
- (25) *우리는 노사 분규를 영희한테서 십만 원에 매입을 했어.
- (26) 중고 피아노가 영희한테서 십만 원에 매입이 됐어.
- (27) *우리는 중고 피아노를 영희한테서 십만 원에 매입이 됐어.
- (28) *노사 분규가 영희한테서 십만 원에 매입이 됐어.

문장 (24)가 정문이라는 사실로부터 명사 **매입**이 후치사구 세 개를 보충어로 갖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데, 그 보충어들 중의 하나는 목적격 후치사구다. 이 후치사구 안에 있는 명사구가 가리키는 것은 소유자가 있는 물건이라야 한다는 선택 제한이 부여되는데 중고 피아노는 그 제한을 지키지만 노사 분규는 지키지 않는다. 따라서, 정문인 (24)와 달리 (25)는 수용할 수 없는 연쇄체다. 문장 (26)이 정문인 이유는 명사 **매입**의 보충어들 중에서 하나가 등장하지 않아도 무방하기 때문인 듯한데 (27)이 비문이라는 사실로부터 **매입**의 보충어들이 모두 등장해서는 안 됨을 알 수 있다. 보충어 세 개가 모두 등장하는 (24)와 보충어 세 개가 모두 등장해서는 안 됨을 보여 주는 (27)을 대비시켜 보면 동사 **하**와 **되**에게 그 책임의 일부가 있음이 밝혀진다.

세 개의 보충어 가운데 어느 것이 동사 **되**의 보충어인 후치사구 안의 명사구에서 결여되어야 하느냐는 위의 문장 (26)이 정문임과 아래 연쇄체 (29) 및 (30)이 비문임을 통해서 자명해진다.

- (29) *영희가 중고 피아노를 십만 원에 매입이 됐어.
- (30) *십만 원이 중고 피아노를 영희한테서 매입이 됐어.

문장 (24)가 문장 (26)을 함의한다는 사실과 연쇄체 (25) 및 (28)의 비문성으로부터, **되**를 머리로 갖는 동사구는 명사 **매입**의 보충어들 중에서 **되**의 보충어인 후치사구 안에서 결여된 것을 주어로 요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반화 된 구구조 문법이 제공하는 장치들을 써서 (26)의 동사구가 갖는 구조를 도시하면 (32)와 같은데, 대응하는 능동 동사구의 구조를 (31)로 볼 경우의 분석이다.¹



¹영어의 수동 구성을 SLASH 자질로써 기술하는 예는 Zwicky(1987)에서 발견된다.

명사가 필요로 하는 논항의 수가 하나 만큼 준다는 점에 있어서 **하-되**의 변동은 능동-수동의 변동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다. **되**-구문에서 명사의 외부 논항이 존재 양화가 된다는 점도 이 구문이 여느 수동 구문과 동질적인 것임을 뜻한다.⁵ 그렇지만 이 변동의 통사적 복잡성은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은 듯하다. 예를 들어 수동문에 관한 세계 여러 언어에 관한 일반화인 Keenan(1985)에 이 패턴은 등장하지 않는다.

하-되의 변동이 한국어 문법에서 주의를 끌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변동이 다수의 서술명사를 매개로 발견된다는 점을 얘기해야 하겠다. 위의 (24)-(30)에서 보인 **매입**이라는 명사와 달리 보충어로 **을/를**이 머리인 후치사구와 **으로/로**가 머리인 후치사구를 갖는 명사들로 **이전, 전환, 오해, 착각, 오인, 분해, 번역, 해석, 분석, 정의, 간주**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임의로 **번역**을 택해서 아래 문장들을 고려하자.

- (33) 이 표현을 “is at stake”로 번역을 했어.
- (34) *우리는 이 사람을 “is at stake”로 번역을 했어.
- (35) 이 표현이 “is at stake”로 번역이 됐어.
- (36) *우리는 이 표현을 “is at stake”로 번역이 됐어.
- (37) *이 사람이 “is at stake”로 번역이 됐어.

명사 **매입**이 보충어를 세 개 갖는 데에 반해서 명사 **번역**이 보충어를 두 개 갖는다는 점과 보충어인 후치사구의 머리가 전자는 **을/를**, **한테서**, **에**지만 후자는 **을/를**, **으로/로**라는 점을 빼면, 위 (33)-(37)이 보이는 패턴은 명사 **매입**을 포함하는 (24)-(28)의 연쇄체들이 보이는 패턴과 전적으로 동일하다. 목적격 후치사구를 보충어로 갖는 명사라고 해서 모두 **하-되**의 변동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성광

⁵명사 **매입**의 IL로의 번역이 “ $\lambda x \lambda y \lambda z \lambda w$ [매입'(w,x,y,z)]”이면 동사구 **A**를 **B**한테서 **C**에 **매입**을 하의 IL로의 번역은 “ λw [매입'(w,A',B',C')]”이고 동사구 **B**한테서 **C**에 **매입**이 되는 번역은 “ $\lambda x \exists w$ [매입'(w,x,B',C')]”이다. (A와 B, 그리고 C는 각각 A', B', 그리고 C'으로 번역된다고 가정하는 경우이다.)

수 (1991: 234)는 **꾸중**이 **제시**와는 달리 이 변동에 참여하지 않음을 명기한다.⁶

(38) 어머니가 아이를 꾸중한다. (=성 광수1991의 (8ㄱ))

(39) *아이가 어머니한테(서) 꾸중 된다. (=성 광수 1991의 (8ㄷ))

여기에다가 **사랑**, **공부**, **출발**, **침략**, **탈출** 등을 보탬 수 있겠다.

이 것들은 모두 목적격 후치사구를 보충어로 가져서 **하**의 보충어인 (후치사구 또는 그 안의) 명사구를 이루지만, 그 목적격 후치사구가 결여되어도 **되**의 보충어인 (후치사구 또는 그 안의) 명사구를 이루지 않는 낱말들이다.

3. 동사 하위범주화의 여러 패턴들

3.1 목록

앞 절에서 소개한 문법관을 가지고 한국어 동사들의 하위범주화 유형을 판별해 보자. 보충어의 수가 많은 것들로부터 점점 단순해져서 나중에는 아무 보충어도 안갖는 동사들로 나아가는 순서를 취하겠다.

를 한테 에 팔, 사, 주, 보내, 넘기
를 한테서 에 사, 구하

⁶성광수(1991)는 **꾸중하**와 **제시하**가 낱말 두 개의 연결체나 아니면 낱말 한 개나에 관해서는 하등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필자가 명사로 다루는 **꾸중**과 **제시**가 동사인 **하**로부터 후치사나 특수 조사, 아니면 복수 주어 표시어인 **들**에 의해 분리된 예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을 뿐 아니라 띄어쓰기조차 안하고 있음은 **꾸중**하나 **제시하**가 통사적 구성의 일부가 아닌 단순한 낱말이라고 암묵적으로 간주하고 있음과 일맥상통한다. 주석 11에서 이 분은 “**정하다**와 **결정하다**는 피동에 있어서 다른 동사이다”라고 서술하는데, 이 점이 바로 필자의 기본 입장과 상치되는 점이다. **정하다**는 낱말이지만 **결정하다**는 낱말이 아니라 낱말 두 개의 연결체다.

를 에 으로	넘기, 가두
를 를 시키	
를 으로	1. 보내 던지, 옮기, 낮추, 올리, 내리 2. 만들, 삼, 여기, 하, 물, 바꾸, 알 3. 빛 만들, 하
를 에	품, 담, 맡기
를 에다가	섞, 타, 놓, 넣, 대, 엮, 얹히, 맞추, 올리, 내리, 띄우, 날리, 쓰 ₁ , 그리, 적, 박, 더하, 쓰 ₂ , 문지르
를 하고	바꾸, 엮, 묶, 섞
를 한테	차이, 맞, 빼앗기, 잡히, 털리, 떼이, 뜯기, 보내, 던지, 넘기, 전하, 보이, 먹이, 묻, 알리, 잃
를 에서	떼, 빼, 제하, 감하
를 한테서	듣, 꾸, 빌리, 받, 얻
한테 S	하 ₁ , 묻, 그리, 우기, 이르, 꼬시, 까불
에서 에	이르, 걸치, 떨어지, 내리
에서 으로	늘, 줄, 바뀌, 변하, 가, 오, 뛰, 나가, 나오, 통하, 돌아오, 돌아가
가	1. 되, 아니, 넘 2. 부럽, 무섭, 안타깝, 좋
를	먹, 잡, 돕, 파, 내, 떨, 겪, 하 ₂ , 조르, 부르, 맞, 겪
에	1. 의하, 가, 오, 있, 다니, 들, 닿, 남, 붙, 맞, 기대, 빠지, 속하, 나타나, 앉, 서, 눕, 앞드리, 너머지, 내리, 오르, 섞이, 부딪히, 걸리, 엮히, 차, 봄비 2. 대하, 많, 적, 밝, 뛰어나, 관하, 대하, 비하, 가깝
에서	1. 빠지, 떨어지 2. 가깝, 멀
하고	1. 닦, 어울리, 사귀, 붙, 헤어지, 다투, 싸우, 부딪히 2. 같, 다르, 친하, 가깝
한테	1. 맞, 당하, 속, 빠지, 반하, 지, 이기, 가, 오, 기대, 붙, 보이

	2. 있, 없, 많, 적
으로	인하, 차, 붐비, 향하, 솟, 꺼지, 사라지, 달아나, 피하
S	∅(는대/ㄴ대/대, 느내/내, 재, 으래/래, 는다면서/ㄴ다면서/다면서), 이/∅
VP	보, 주, 놓, 버리, 가, 앉, 있, 하 ₃ , 싶
NP	이/∅, 같, 답
_____	1. 나, 개, 풀리, 들 2. 바쁘, 길, 예쁘, 있, 그렇, 이렇, 저렇

3.2 목록 보는 법

앞 절에 제시된 하위범주화의 패턴들은 필자가 아는 한 망라적이다. 사전 구성의 경제성을 고려해서 일부 제외된 것들이 있고, 극소수의 동사만 참여하는 패턴들이 제외되었다.⁷ 목록에서 빠진 가장 중요한 패턴으로는 “NP PP[한테] PP[에]”, “NP PP[한테서] PP[에]”, “NP PP[에] PP[으로]”, “NP PP[으로]”, “NP PP[에]”, “NP PP[에다가]”, “NP PP[하고]”, “NP PP[한테]”, “NP PP[에서]”, “NP PP[한테서]”, 그리고 “NP”가 있다. 이 것들이 빠진 이유는, 2.5에서 이미 논의했듯이, **을/를**을 머리로 갖는 후치사구를 보충어로 (또는 보충어들 중 하나로) 갖는 모든 낱말은 그것 대신에 명사구를 보충어로 갖기도 한다는 일반화 때문이다. 자신의 하위범주화 목록(subcategorization list)이 <...PP[를]>인 모든 낱말은 동시에 <...NP>라는 목록도 갖는다.

목록 3.1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패턴들 중에는 후치사의 등가 관계로 인해 예측 가능한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 후치사 **에게**는 **한테**와, 그리고 후치사 **과/와는** **하고**와 통사의미적 측면에서 완전한

⁷계사 **이/∅**는 사건 발생의 장소를 뜻하는 후치사구를 보충어로 갖는 유일한 동사다. 후치사 **에서**를 머리로 갖는 후치사구는 사건발생의 장소를 가리킬 때 부가어로 다루어짐을 감안하면, **이/∅**의 특이함이 두드러진다.

동치 관계에 놓인다. 이 쌍들의 대립항들이 서로 구별되는 면은 입지적 가치(registral value)다. **한테**와 **하고**가 구어/격식중립의 값을 갖는 반면 **에게**와 **과/외**는 문어/격식의 값을 갖는다. 통사의미적 동치 관계에 놓이는 두 후치사 사이에는 하위범주화 목록에서의 대체 관계도 존재한다. 즉, **한테**가 머리인 후치사구를 보충어로 (또는 보충어들 중 하나로) 갖는 모든 낱말은 그 것 대신에 **에게**가 머리인 후치사구를 보충어로 (또는 보충어들 중 하나로) 가질 수도 있다. **한테**와 **에**사이에도 유정성(animacy)을 제외한 모든 측면에서의 등가성이 존재한다. 의미 면에서 등가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하위범주화 목록상의 등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듯하다. 후치사 **에다가**는 장소의 이동이 수반되는 사건을 가리키는 술어의 보충어로 쓰인다. 어떤 물체의 이동이 함의되는 사건들에서 이동하는 물체의 착점을 가리키는 것이 이 후치사구다. 그러나 이 후치사구는 물체의 이동이, 묘사되는 유일한 사건인 경우에는 쓰이지 않는다. 통사적으로 말해서, 이 후치사구는 자동사하고는 공기하지 않는다. **에다가**가 머리인 후치사구가 특이하게 좁게 분포하는 데에 반해서 **에**가 머리인 후치사구는 자동사하고도 공기하고 타동사하고도 공기한다.

- (40) a. 거울이 땅 바닥에 떨어졌지.
 b. *거울이 땅 바닥에다가 떨어졌지.
 (41) a. 거울을 땅 바닥에 떨어뜨렸지.
 b. 거울을 땅 바닥에다가 떨어뜨렸지.

에다가가 머리인 후치사구를 보충어로 (또는 보충어들 중 하나로) 갖는 모든 낱말은 그것 대신에 **에**가 머리인 후치사구를 보충어로 (또는 보충어들 중 하나로) 갖기도 한다.

4. 명사 하위범주화의 여러 패턴들

4.1 목록

앞 절에서처럼 보충어를 여럿 갖는 낱말들로부터 점점 단순해져서 나중에는 보충어를 전혀 안갖는 낱말들로 나아가는 순서를 취하겠다.

를 한테 에	매도, 판매
를 한테서 에	구입, 매입, 구매
를 에 으로	고발
를 으로	이전, 전환, 오해, 착각, 오인, 분해, 번역, 해석, 분석, 정의, 간주, 제기, 제한, 한정, 동결, 처리, 취급, 파견, 우송, 발송, 임명, 구속, 유인, 유혹
를 에다가	가미, 추가, 삽입, 첨가, 도입, 장만, 마련, 집중, 기입, 기재, 적재, 설치, 장착, 이용, 사용, 활용, 적용, 응용, 유용, 분배, 유포, 배포
를 하고	교환, 혼동, 구별, 연계, 동일시, 대조, 비교
를 한테	약속, 추천, 강조, 촉구, 위탁, 부탁, 요청, 요구, 강요, 청구, 반납, 지원, 공급, 제공, 제출, 인계
를 에	포함, 산입, 한정, 임명, 배치, 설치, 장착, 착용
를 에서	분리, 삭제, 제외, 제명, 제적, 인수
를 한테서	차용, 획득, 입수, 승계
한테 S	보고, 불평, 질의, 질문, 제의, 제안, 인사
에서 으로	증가, 신장, 수축, 감소, 이동, 이전, 변화, 변신, 전략, 퇴화, 성장, 발달, 발전
가	불쌍, 기특, 대견, 패썬, 한심, 가련, 미안, 억울, 궁금, 섭섭
를	1. 포함, 연기, 검사, 고려, 발행, 완성, 마감, 처리, 수정, 변경, 실현, 운영, 요리, 현대화, 세탁,

	시작, 계속, 중단, 중지, 능가, 지탱
	2. 사랑, 공부, 꾸중, 통과, 출발, 기만, 존경
에	1. 도착, 착륙, 망명, 기인, 의존, 근거, 의지, 부합, 부응, 작용, 노력, 매진, 돌입, 반발, 저항, 입학, 합격, 취직, 입회, 가입, 가담, 개입, 관여, 간섭, 성공, 실패, 참가, 참여, 착수, 분포, 만연, 동의, 주의, 유념, 실망, 출근, 근무, 명중, 주효, 적응, 순응, 미달, 출마, 입후보
	2. 필요, 박식, 박학, 정통, 탁월, 민감, 익숙, 파다, 유효, 불과
	3. 찬성, 반대, 최고, 도사, 약, 특효, 문외한, 적극, 적극적, 소극적, 미달
에서	1. 유래, 연원, 기원, 이탈, 일탈, 독립, 탈출, 퇴임
	2. 제일, 최고, 꼴찌
하고	1. 유사, 판이, 동일, 상이, 비슷, 무관, 절친
	2. 결합, 결혼, 동업, 동침, 충돌, 일치, 합의, 협동, 협력, 협의, 공존, 교제, 교류, 결탁, 공조, 상종
	3. 동종, 동갑, 동시, 동차, 동의, 동색, 동기간, 동창, 반대, 평행, 대칭
한테	의지, 의존, 애걸, 존재, 패배
으로	가장, 위장, 활동, 기능, 행세, 출마
S	때문, 뿐, 듯이, 경우, 댓가, 대로, 만큼, 것, 바람, 모양, 가능성, 보고, 불평, 질문, 제의, 소문, 소식, 후, 다음
VP	계획, 작정, 요량, 생각, 심산, 채
MP	1. 개, 명, 마리, 벌, 채, 시간, 아름, 송이, 다발
	2. 초, 분, 일, 주일, 주, 개월, 년, 킬로, 원, 달러
NP	1. 때문, 전, 후, 중, 차, 방향, 썸, 가랑, 쪽, 앞, 뒤, 옆, 위, 속, 아래, 주위, 이상, 투성이, 대로, 만큼, 여부, 덕분에, 소속, 산하, 특유, 소유, 유일,

전문

2. 동생, 형, 누나,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조카, 사촌, 친구, 이웃, 급우, 교우, 친지,
사위, 딸, 외종, 이종, 담임, 담당관, 담당자,
상관, 상사, 부하, 추종자
 3. 생각, 걱정, 칭찬, 욕, 애기
-
1. 행복, 친절, 황량, 활발, 막연, 애매, 적막, 명랑,
적절, 타당, 유일, 분명
 2. 유행, 수고, 패망, 숙박, 생활, 취침, 발생, 변영,
희생, 망년회, 목욕, 나무, 밥
 3. 개념, 역사, 가치, 모순, 진리, 비밀, 서론, 이익
 4. 하나, 둘, 셋, 몇, 여럿, 이, 그, 저, 여기, 거기,
저기, 오늘, 지금, 현대적, 학급별
 5. 자동차, 아이, 생선, 화분, 학교

4.2 목록 보는 법

앞 절에 제시된 명사 하위범주화의 패턴들은 3.1에 제시된 동사 하위범주화의 패턴들과 거의 동일하다. 도합 스물 세 개의 패턴은 이 두 범주에 공유되어 있고, 동사 특유의 패턴은 “를 룰”과 “에서 에”의 두 개이며 명사 특유의 패턴은 “MP(numeral phrase)” 한 개 뿐이다. 4.1의 목록에서 빠진 패턴들이 빠진 이유도 3.1의 목록에서 빠진 패턴들이 빠진 이유와 동일하다. 즉 목적격 후치사구와 명사구의 대체 가능성, **에게**와 **한테** 및 **한테**와 **과/와**의 통사 의미적 등가성, 그리고 **에다가**와 **에**의 성질 등은 동사의 보충어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명사의 보충어들에서도 똑같이 발견되는 것이다.

필자의 문법관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는 이 목록에 “를” 패턴과 “NP”패턴이 별개로 등장하는 점을 신기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42)와 (43)에서 드러나는 문법성의 대조를 고려하라.

- (42) a. 나 때문에 속 상했지?
 b. *나를 때문에 속 상했지?
 (43) a. 너 저기 지나가는 사람 동생이니?
 b. *너 저기 지나가는 사람을 동생이니?

이 대조는 목적격 후치사구와 변동하지 않는 명사구가 있음을 보여 주며 필자가 “NP를”을 일종의 명사구로 간주하지 않고 후치사구로 간주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보충어 목록이 완전히 빈 목록인 명사들 중에서 세 번째 부류는 첫 두 부류와 마찬가지로 지칭 대상이 추상적 존재이다. 이 부류가 갖는 이론적 중요성은 뒤의 6절에서 강조될 것이지만, 소위 “가벼운 동사”와 공기하느냐 앓느냐 하는 것이 해당 명사의 의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환원론적 입장이 견지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역시 보충어를 안갖는 명사의 네 번째 부류도 독자의 주의를 끈다. 그 이유는 이 부류에 속하는 낱말들이 어떤 품사에 속하느냐가 최대한 단순한 방법으로 결정되지 않는기 때문이다. (김슬옹 (1992) 참조)

5. 동사와 명사의 평행성

5.1 목적격 후치사구와 명사구 사이의 변동의 무차별성

목적격의 후치사 **을/를**을 머리로 갖는 후치사구가 어떤 낱말의 보충어일 때 이 후치사구 대신 명사구가 그 낱말의 보충어일 수 있다는 점은 한국어 통사 부문이 갖는 중요한 성질이다. 이 현상은 문법 기술의 층위가 둘 이상일 수 있다는, 기본적으로 변형문법적인 관점에서 흔히 “격표지 생략”이라고 판별되는 현상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문법 기술의 층위가 하나밖에 없다는 단층문법

*채희락(1996: 431-432)도 동일한 맥락에서 서정수(1991)의 “비실체성”이라는 개념의 취약성을 지적한다.

(monostratal grammar)의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에, “생략”이니 “이동”이니 하는 개념을 애시당초부터 이용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따라서 두 구성이 관련되는 방식은 아래와 같은 함축 규칙 (implicational rules)을 통해서다.

- (43) “VP \rightarrow α PP[CASE, ACC] β H”라는 구구조 규칙이 한국어 문법에 들어 있으면 “VP \rightarrow α NP β H”라는 규칙도 한국어 문법에 들어 있다. (α 와 β 는 비종결 부호 (non-terminal symbols)의 연쇄체로서 영연쇄체일 수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동사구의 직접 구성성분인 목적격 후치사구 하나하나에 대해 동사구의 직접 구성성분인 명사구가 존재한다. 의미 규칙이 각 유형의 동사구에 대해 동일한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위 규칙은 목적격 후치사구를 명사구로 대체해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 구가 탄생한다는 것을 얘기한다. 즉, 목적격 표지가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탈락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

앞의 두 절에서 한국어의 동사와 명사가 어떤 하위범주화의 틀들을 갖는지를 일람했는데, 이 두 낱말부류 사이의 유사성은 하위범주화 틀들의 총체적인 유사성 뿐 아니라 목적격 후치사구와 명사구 사이의 변동에 있어서의 유사성으로도 더욱 두드러진다. 동사구의 머리인 동사의 보충어인 목적격 후치사구 뿐 아니라 명사구의 머리인 명사의 보충어인 목적격 후치사구도 명사구와 변동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즉, (43)의 함축 규칙은 더 넓은 범위에 적용되게끔 아래와 같이 바뀔 수 있다.

- (44) “XP \rightarrow α PP[CASE, ACC] β H”라는 구구조 규칙이 한국어 문법에 들어 있으면 “XP \rightarrow α NP β H”라는 규칙도 한국어 문법에 들어 있다. (α 와 β 는 비종결 부호(nonterminal symbols)의 연쇄체로서 영연쇄체일 수 있다.)

이 함축 규칙에 따르면 목적격 후치사구와 명사구 사이의 변동이 동사구 안으로 한정되지 않고 모든 종류의 구 안으로 개방된다.

5.2 보충어의 순서

한국어 동사와 명사 사이의 또 하나의 평행성은 보충어들 사이의 순서에 나타난다. 동사의 보충어는 대체로 자유롭다. 아래 문장들을 고려해 보자.

- (45) a. 그 소식을 영희한테서 들었어.
 b. 영희한테서 그 소식을 들었어.

이 두 문장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법적 문장들이다. 동사 들의 보충어인 후치사구 두 개가 상대적으로 어떤 순서로 등장하건 간에 문법성이 지장을 받지 않는 것이다. 보충어들간의 상대적 순서가 자유롭다. 이러한 순서의 자유로움은 동사의 보충어들만 갖는 성질이 아니다.

- (46) a. 그 정보를 영희한테서 입수 했어.
 b. 영희한테서 그 정보를 입수 했어.

명사 **입수**의 보충어인 후치사구 두 개도 상대적 위치를 개의치 않고 놓일 수 있음을 (46)의 두 문장이 증명해 준다.

5.3 보충어들 사이의 접근가능성 위계상의 체계적 차이

동사의 외부 논항인 주어가 등장하는 관계절에서는 동사의 보충어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등장하지 않는다. 등장하지 않는 이 보충어는 명사구의 의미 표시에서 관계절이 수식하는 명사의 외연인 한자리술어의 유일한 논항이 되는 변인으로 표시된다.⁹ 다층위 문법에서는

영형인 wh-요소가 관계절 CP의 명세자 자리로 이동했다고 한다. 관계절 안에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머리인 명사의 외연과 동종의 개체를 가리킴으로써 의미있는 명사구를 형성할 수 있는 보충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Keenan and Comrie(1977)에 따르면 관계화에 있어서의 보충어별 접근 가능성은 서로 다른 것이 보통이다. 언어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서 모든 보충어가 접근가능한 언어가 있는가 하면 주어 이외의 어떤 논항도 관계화에 접근가능하지 않은 언어들도 있다.

한국어에서는 목적격 후치사구의 접근 가능성이 높다. 관계절 형성을 위해 등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데에 있어서 예외가 없는 것이 목적격 후치사구다. 그 다음으로는 단일 보충어들의 관계화에 있어서의 접근가능성이 여러 보충어들 중의 하나인 것의 관계화에 있어서의 접근가능성보다 더 높다.

- (47) a. 우리가 주문 쓰레기
b. *우리가 더 큰 아이
- (48) a. 우리가 제거 한 쓰레기
b. *우리가 더 친절 한 아이
- (49) a. ?우리가 중고 피아노를 십만 원에 산 사람
b. *우리가 중고 피아노를 영희한테서 산 돈
- (50) a. ?우리가 중고 피아노를 십만 원에 매입 한 사람
b. *우리가 중고 피아노를 영희한테서 매입 한 돈

6. 사전 구성에 있어서의 한국어 명사

앞 절들에서 필자가 보이고자 한 것은 한국어의 명사가 동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보충어들을 가진다는 점이다. 한국어 사용자의 심성사전에는 당연히 명사들에게도 각기 자신의 하위범주화의 틀이 부

"영희가 만날 총각"의 의미는 " $\iota x[\text{총각}(x) \wedge \text{영희가 } x\text{를 만나}]$ "로 표현될 수 있다. 시제 문제를 별도로 했을 때의 예기다.

여되어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사전의 명사 항목들이 어떤 하위 범주화의 틀을 갖는지는 일일이 조사되어야 하겠지만 그 작업은 본질적으로 4.1의 목록을 완성하는 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6.1 명사 어휘소를 위한 통사 정보의 종류

명사인 어휘소들이 각기 특유의 하위범주화 틀을 갖는다고 가정할지라도, 한국어 명사와 관련된 통사적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남은 문제들이 무엇이며 사전에 명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추가적 정보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 보자.

목록 4.1에 제시된 스물 네 가지 패턴들을 조망하면 대뜸 눈에 띄는 것이 각각의 명사들과 특별한 동사 **하**와의 각별한 관계다. 대다수의 명사들이 동사 **하**와 결합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점인 것이다. 하위범주화 패턴들 스물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 패턴에 있어서는 그 패턴을 갖는 명사가 동사 **하**와 결합하지 않음이 관찰된다. 이 두 가지 패턴은 각각 VP를 보충어로 갖는 명사와 MP를 보충어로 갖는 명사들이다. 이 명사들이 동사 **하**와 결합하면 (51)과 같은 비문을 이룬다.

- (51) a. *테니스를 배울 요랑합니다.
 b. *장미 다섯 송이 합니다.

특유의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가벼운 동사(light verb)”라고 불리는 **하**와 결합하느냐 결합하지 않느냐로 명사들이 양분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목록 4.1에 실린 명사들의 대다수는 가벼운 동사하고 각별한 관계에 놓인다. 그러나 가벼운 동사하고의 각별한 관계가 하위범주화 패턴을 어떤 식으로 결정하지 않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소위 경동사라는 것과 각별한 공기 관계에 놓인다는 성질은 어떤 하위범주화 틀을 갖는가 하는 성질과 전적으로 별개임을 언명하는 논문은 필자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없다. 이 두 성질의 독립성은 양쪽에서 관찰된다.

- (52) 동사 **하**하고 각별한 공기관계에 놓이는 낱말 중에 아무런 보충어를 갖지 않는 낱말들이 있다.
- (53) 동종의 보충어를 갖는 낱말들 중에 동사 **하**하고 각별한 공기 관계에 놓이지 않는 낱말들이 있다.

먼저 (52)의 예를 보자. **유행, 수고, 패망, 숙박, 생활** 등의 명사들은 아무런 보충어를 갖지 않는 낱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소위 경동사라는 **하**와 각별한 공기 관계에 놓이는 낱말들이다. 이들은 보충어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개념, 역사, 가치, 현대적, 생선** 등과 달리 행동한다. (54)의 연쇄체들이 상이한 수용가능성을 노정함에 유의해야 한다.

- (54) a. 올 봄에는 혈령한 바지가 유행 할 겁니다.
b. *우리는 추상적인 개념 합니다.

어떤 보충어를 갖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낱말들도 경동사 **하**하고 각별한 공기 관계에 놓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어서는 상이한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 NP를 보충어로 갖는 낱말들의 경우를 예로 들겠다. (55)에서 보듯이 **때문, 동생, 그리고 생각**은 모두 NP를 보충어로 갖는다.

- (55) a. 너도 철수 때문에 늦었니?
b. 너 철수 동생 만났니?
c. 너 철수 생각 하니?

그런데 경동사 **하**하고 각별한 공기 관계에 놓이는 낱말은 이들 중에서는 **생각** 하나밖에 없다. **때문**과 **동생**은 **하**하고 공기하지 않음을 (56)의 비문성으로부터 쉽게 추론할 수 있다.¹⁰⁾

¹⁰⁾(56b)를 정문으로 볼 수도 있다. 연기자가 어떤 역할을 맡는다는 함의를 갖는 구문에서는 동사 **하**와 공기할 수 있는 명사구의 범위가 매우 넓다.

- (56) a. *너도 철수 때문 했니?
b. *너 철수 동생 했니?

동종의 보충어를 갖는 명사 어휘들이 경동사 **하**하고의 공기 관계에 있어서 상이한 성질을 보인다는 것은 더욱 넓은 범위의 보충어들로부터 확인될 수 있다. 위에서 본 NP를 보충어로 갖는 명사 어휘들과 별도로 후치사 **하고**를 머리로 갖는 후치사구를 보충어로 갖는 명사들의 경우를 뽑아 보자. **결혼**과 **충돌**은 경동사 **하**하고 각별한 공기 관계에 놓이는 낱말들이지만 **동갑**이나 **반대**는 **하**하고 공기하지 않는다.¹¹

- (57) 철수하고 결혼했어.
(58) a. 네 생각하고 반대야.
b. *네 생각하고 반대 했어.
(59) a. 철수하고 동갑이야.
b. *철수하고 동갑 했어.

이상의 논의로써 어떤 명사가 보충어를 갖느냐 또는 어떤 보충어를 갖느냐는 그 명사가 경동사 **하**와 각별한 공기 관계에 놓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전적으로 별개의 것임을 충분히 논증했다고 본다. 따라서 심성 사전의 각 명사 어휘에 대해서는 그 어휘의 하위범주화의 틀 뿐 아니라 경동사 **하**하고의 각별한 공기 관계 성립 여부까지 명세되어야 한다. 하위 범주화의 틀과 경동사 **하**하고의 각별한 공기 관계 외에는 자신의 보충어가 어떤 어휘 자질이나 굴곡 자질을 가져야 하는지가 명사 하나하나에 대해서 명세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¹¹(58b)는 지금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닌 구조를 갖는 연쇄체로서는 완벽한 문장이다. 그 구조에서는 명사 **반대**의 보충어가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명사 **생각**과 **반대** 사이의 **하고**는 후치사가 아닌 동사다. 그리고 **네 생각하고**는 뒤따르는 동사의 보충어가 아니다. 발음이 전적으로 동일하고 의미상 유사성이 매우 크지만 보충어의 종류가 다른 제 이의 **반대**가 있는데, 이 것은 경동사 **하**하고 각별한 공기관계에 놓인다. 이 요소는 후치사 **에**를 머리로 갖는 후치사구를 보충어로 갖는다. **그 법률안**에 **반대**하는 집단이 그러한 **반대**를 포함하는 연쇄체다.

- (60) a. 사과 세 개를 먹고
 b. *사과 삼 개를 먹고
- (61) a. *무려 세 개월이 지난 후에
 b. 무려 삼 개월이 지난 후에

측량 단위 명사 또는 분류사가 자신의 보충어로 갖는 수사구의 머리인 수사가 소위 순수 한국어 어휘인가 아니면 고대 중국어로부터의 차용어인가는 낱말에 따라 다르고 여기에 의미론적 동기는 없어 보이므로 사전에 이 정보가 분류사 각각에 대해서 제공된다고 봐야 하겠다. 이처럼 순전히 임의적인 자질로써 문법성의 대립이 발견되는 곳으로는 NP를 보충어로 갖는 명사들 및 VP를 보충어로 갖는 명사들도 있다.

- (62) a. 너 때문에
 b. *네 때문에
- (63) a. *너 덕분에
 b. 네 덕분에
- (64) a. *앉은 작정이야.
 b. *앉는 작정이야.
 c. 앉을 작정이야.
- (65) a. 앉은 채로 들어.
 b. *앉는 채로 들어.
 c. *앉을 채로 들어.

위의 예들에서 **때문**과 **덕분**의 차이는 하위범주화의 틀에 있거나 경동사하고의 각별한 공기 관계 성립 여부에 있지 않고 보충어가 갖는 어휘 자질에 있다. (62a)의 **너**와 (63b)의 **네**가 각각 어떤 자질을 갖든 이들의 차이가 통사 규칙에 명세 되어야 이러한 대립들이 포착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은 (64)와 (65)에 제시된 **작정**과 **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6.2 경동사하高的 각별한 공기 관계

앞 절에서 명사 어휘소 각 항목은 경동사 **하**와의 각별한 공기 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을 논증하였다. 하위 범주화의 틀에 관한 정보는 SUBCAT라는 자질과 그 자질의 값으로 위 4.1의 스물 네 개의 틀들 중 하나를 쓰면 될 텐데, 경동사 **하**하高的 각별한 공기관계 성립 여부는 어떤 자질과 어떤 값을 써서 사전에 표시해야 할까? 얼핏 보기에는 HA 또는 LV를 자질의 이름으로 쓰고 그 값으로 +나 -를 쓰면 될 것 같다. 그런 체계 아래에서라면 **결혼**과 **동갑**의 차이는 [HA, +]와 [HA, -]의 차이일 것이다. 이 두 어휘소는 [SUBCAT, <PP[PFORM, 과]>]를 공유할 것이다. **유행**과 **자동차**의 차이도 이 차이와 동일할 것이다. 이 둘은 [SUBCAT, <>]을 공유한다는 점에 있어서 앞의 쌍과 구별될 것이다. 그러나 이 체계는 이분적 자질을 채택함으로써 각별한 공기 관계라는 성질을 경동사 **하** 하나와의 관계로 국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Chae(1995)가 빌붙이 (clitic)임을 보임으로써 동작 동사 **하**와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된 상태 동사 **하**하高的 각별한 관계라는 성질을 다루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질을 도입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유사**, **절친** 등과 **결혼**, **충돌** 등이 보이는 차이는 위에서 쓴 이분적 자질 HA로써 포착되지만 이들과 **동갑**, **반대** 등이 보이는 차이는 제 삼의 자질을 새로이 도입하지 않는 한 포착되지 않는다.

새로운 자질의 추가적인 도입은 상태 동사 **하**와의 공기 관계를 위한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다수의 명사 어휘소들이 동사 **내**와 각별한 공기 관계에 놓이는데, 이 것들 중에서 하위범주화의 틀이 영연쇄체가 아닌 것으로 **핑크**하고 **소문**이 있다.

- (66) a. 앞 바퀴에 핑크를 냈어.
 b. *앞 바퀴에 핑크를 했어.
 c. *앞 바퀴에 핑크하다.
 d. *앞 바퀴에 핑크야.

- (67) a. 네가 떠났다는 소문을 냈어.
 b. *네가 떠났다는 소문을 했어.
 c. *네가 떠났다는 소문하다.
 d. 네가 떠났다는 소문이야.

예시된 (66)과 (67)의 b와 c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들이라면 문제의 두 명사 어휘소, 즉 **핑크**와 **소문**에 대해서 이들이 경동사 **하나** 특별한 상태 동사 **하**와 최소의 동사구 안에서 공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도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진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66a)와 (67a)가 완벽한 문장들이므로, 이 두 어휘소가 제 삼의 특별한 동사 **내**와 공기할 수 있다는 점도 역시 사진과 문법의 상호 작용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질의 수를 소수로 유지하면서 다종의 경동사하고의 공기 여부에 관한 정보를 표시해 주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제 일감으로 다분적 자질을 설정할 필요가 떠 오른다. 어떤 명사 어휘가 특정한 경술어하고 공기하면 일반적으로 이 어휘는 여타의 경술어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친절**이나 **행복**은 소위 가벼운 상태동사 **하**하고는 공기하지만 가벼운 동작동사 **하나 내**하고는 공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핑크**나 **소문**은 가벼운 동작동사 **내**하고는 공기하지만 가벼운 상태동사 **하나** 제 삼의 가벼운 동작동사 **하**하고는 공기하지 않는다. 이런 관찰은 이내 명사 어휘 각각이 일련의 경술어들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일반화를 가능케 한다. 이 일련의 경술어의 구성원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더 조사 할 필요가 있겠지만, 여태까지의 논의로부터 적어도 아래와 같은 다섯 종류는 포함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68) a. 가벼운 상태 동사 **하** (**친절, 행복**)
 b. 가벼운 동작동사 **하** (**매입₁, 번역₁, 수고, 사랑, 초토화**)
 c. 가벼운 동작동사 **되** (**매입₂, 번역₂, 마비, 피살, 초토화**)
 d. 가벼운 동작동사 **내** (**핑크, 소문**)
 e. a-d의 어느 것도 아님 (**개념, 자동차**)

경술어와의 특별한 공기관계의 범위가 위와 같이 확정될 수 있다면, 한 가지 자질-예컨대 COLLOC을 써서 이 분할을 표현할 수 있다. ('collocates with'라고 읽으면 된다.) 아래의 기술이 그 한 예다.

- (69) a. 친절 [COLLOC, stat-*ha*]
- b. 매입₁ [COLLOC, *ha*]
- c. 매입₂ [COLLOC, *toi*]
- d. 핑크 [COLLOC, *nay*]
- e. 개념 [COLLOC, none]

각별한 공기관계라는 자질과 그 값을 별도의 자질-값인 하위범주화 정보와 병치시켜서 사전의 명사 항목들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70) a. $\left[\begin{array}{l} \text{친절} \\ \text{COLLOC, stat-} \mathit{ha} \\ \text{SUBCAT, } \langle \rangle \end{array} \right]$
- b. $\left[\begin{array}{l} \text{매입}_1 \\ \text{COLLOC, } \mathit{ha} \\ \text{SUBCAT, } \langle \text{PP[를], PP[한테], PP[에]} \rangle \end{array} \right]$
- c. $\left[\begin{array}{l} \text{사랑} \\ \text{COLLOC, } \mathit{ha} \\ \text{SUBCAT, } \langle \text{PP[를]} \rangle \end{array} \right]$
- d. $\left[\begin{array}{l} \text{매입}_2 \\ \text{COLLOC, } \mathit{toi} \\ \text{SUBCAT, } \langle \text{PP[한테], PP[에]} \rangle \end{array} \right]$
- e. $\left[\begin{array}{l} \text{마비} \\ \text{COLLOC, } \mathit{toi} \\ \text{SUBCAT, } \langle \rangle \end{array} \right]$
- f. $\left[\begin{array}{l} \text{핑크} \\ \text{COLLOC, } \mathit{nay} \\ \text{SUBCAT, } \langle \text{PP[에]} \rangle \end{array} \right]$
- g. $\left[\begin{array}{l} \text{착정} \\ \text{COLLOC, none} \\ \text{SUBCAT, } \langle \text{VP} \rangle \end{array} \right]$
- h. $\left[\begin{array}{l} \text{주위} \\ \text{COLLOC, none} \\ \text{SUBCAT, } \langle \text{NP} \rangle \end{array} \right]$

COLLOC 자질과 SUBCAT 자질의 값들이 정해지면 이처럼 모든 명사를 유한한 수의 하위 부류로 분류할 수 있고, 임의의 자연스러운 부류군이 통사규칙들에 언급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6.3 구구조 규칙에서의 COLLOC 자질의 활용

앞의 두 소절을 통해 필자는 하위범주화의 정보와 별도로 각별한 공기관계에 관한 정보를 사전의 명사 항목 각각에 대해 제공해야 함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다. 명사의 하위범주화 정보의 활용은 동사의 하위범주화 정보 활용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여기에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 하겠다. 그러나 각각의 명사가 소위 경술어라고 불리는 것들 중에서 어느 것과 결합하느냐(또는 아무 것과도 결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영어 등에서 많이 논의되지 않았고, 이렇게 자질-값의 쌍으로 형식화하려는 시도도 없었으므로 더욱 자세히 그 활용의 양상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한국어의 명사가 일반적으로 보충어를 갖는 어휘범주라고 보는 데에는 두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그 하나는 영어의 명사가 보충어를 안 갖는 어휘범주라는 점이다. 이 점은 언어간의 유사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이 관점이 부닥치는 두 번째 애로점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에 있어서나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반드시 그 해결책이 추구되어야 하는 종류이다.

어떤 명사구가 보충어를 갖는 명사를 자신의 머리로 가질 때에 이 명사구의 분포에는 심각한 제약이 있다.

- (71) 중고 피아노를 영희한테서 십만 원에 매입을 했어.
- (72) *중고 피아노를 영희한테서 십만 원에 매입이 너무 일렸어.
- (73) *우리는 중고 피아노를 영희한테서 십만 원에 매입을 반대했어.
- (74) *중고 피아노를 영희한테서 십만 원에 매입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빈 털털이야.

보충어를 갖는 명사가 보충어를 일부 결여하고 일부는 유지할 경우에도 이 명사를 머리로 갖는 명사구의 분포에는 위와 같은 제약이 있다.

- (75) 십만 원에 매입을 했어.
- (76) *십만 원에 매입이 너무 일렀어.
- (77) *우리는 십만 원에 매입을 반대했어.
- (78) *십만 원에 매입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빈 털털이야.

그러나 보충어를 갖는 명사라도 보충어 없이 등장하는 것은 단독으로 명사구를 이룰 때에 이러한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 (79) 매입이 너무 일렀어.
- (80) 우리는 매입을 반대했어.
- (81) 매입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빈 털털이야.

모든 보충어가 동시에 억압될 경우에 머리인 명사를 직접지배하는 명사구의 분포는 최대한으로 자유롭다. 보충어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등장하면 머리인 명사를 직접지배하는 명사구의 분포는 매우 제약된다. 이 점은 연쇄체 (76)-(78)이 비문법적인 연쇄체들인 데에 반해서 문장 (79)-(81)이 정문이라는 사실로 증명된다.

어떤 명사의 보충어들 중에서 그 명사와 함께 실제로 등장하는 것이 명사구인 보충어 하나 뿐일 경우에는, 이 명사를 머리로 갖는 명사구의 분포는 자유롭다.¹² 명사구인 보충어와 후치사구인 보충어는 이 점에 있어서 엄격한 대조를 보인다.

¹²(82)-(84)에 등장하는 **중고 피아노 매입**을 정상적인 통사적 구성이라고 보지 않고 어떤 형태적 구성, 예컨대 복합명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미봉책이다. 그 이유는 이 구성의 의미 해석 방법이 규칙적일 뿐 아니라 명사구 자리의 확장이 자유로운 점이다. **중고 피아노나 바이올린 매입**, **낡아 빠져서 못 쓰게 된 중고 피아노 매입** 등에 유의하라.

- (82) a. 중고 피아노 매입이 너무 일렀어.
 b. *중고 피아노를 매입이 너무 일렀어.
- (83) a. 우리는 중고 피아노 매입을 반대했어.
 b. *우리는 중고 피아노를 매입을 반대했어.
- (84) a. 중고 피아노 매입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빈 털털이야.
 b. *중고 피아노를 매입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빈 털털이야.

명사구의 분포에 관한 이러한 제약은 사전에 기재되는 하위범주화 정보와 국지 수형도(local tree)의 부합이 어때야 하는가에 관한 의문이 일게 한다. 평범한 머리-보충어 규칙(head-complement rule)과 하위범주화 원리, 그리고 6.2의 (70)에서와 같은 사전 명세를 가정하면 이 절의 앞 부분에 등장한 모든 비문이 정문으로 예측된다.

머리-보충어 규칙과 하위범주화 원리를 유지하면서 앞에 등장한 비문법적 연쇄체를 걸러 내려면 천상 수형도에 대한 비국지적 제약(nonlocal restrictions)을 별도로 가해야 한다. 이러한 제약은 어머니 교점 하나와 딸 교점들로 이루어진 국지적 수형도에만 적용되는 제약과는 달리 기존의 구구조 문법에서는 기술할 수 없다. 문법의 틀 자체가 약간 수정되어야 한다. 여하튼 그러한 틀 안에서 이 제약들이 어떻게 기술될 것인가? 그 답은 아래와 같다.

- (85) 머리의 SYNSEM | LOCAL | CAT 값이 $\left[\begin{array}{l} \text{HEAD} \text{ noun} \\ \text{COLLOC} \text{ [1]} \\ \text{SUBCAT} \text{ [2]} \end{array} \right]$

이고 (단, [1] ≠ none) 머리 아닌 딸들의 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a ($\in 2^{\mathbb{N}}$)인 명사구는 다음 셋 중 하나에 의해 인가된다: (i) 이 명사구를 보충어로 갖는 동사 [1] (ii) 이 명사구의 어머니인 PP를 보충어로 갖는 동사 [1] (iii) 이 명사구를 직접지배하는 S[+ROOT]

여기에서는 자질 SUBCAT의 값이 보충어인 최대투사체들의 집합이

며 이 집합의 멱집합 $2^{\mathcal{A}}$ 를 언급하는 이유는 임의의 보충어가 억압되어도 좋다는 한국어 통사부문의 특성을 포착하기 위함이다. 이 멱집합의 원소인 a 가 공집합일 경우에는 문제의 명사를 머리로 갖는 명사구의 등장에 특별한 인가 조건이 없다. (79)-(81)이 모두 정문임을 상기하라. 위의 인가 조건 중에서 (i)은 소위 서술명사와 가벼운 동사 사이에 후치사 **을/를**이나 **이/가**가 없는 경우를 위한 것이며 (**앞 바퀴에 핑크 냀어와 중고 피아노를 매입 했어, 십만원에 매입 됐어** 등), (ii)는 이들 사이에 후치사 **을/를** 또는 **이/가**가 있는 경우를 위한 것이다. (**앞 바퀴에 핑크를 냀어와 중고 피아노를 매입을 했어, 십만원에 매입이 됐어** 등).

머리 명사의 보충어가 등장하는 명사구의 분포를 인가하는 세 번째 조건은 특수한 입지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문기사의 헤드라인 같이 동사 없이 문장이 구성되는 경우에, 뿌리 문장 교점의 딸인 명사구는 적형임을 포착한다. 아래의 문장들에 들어 있는 두 번째 명사구가 이 조건에 의해 인가되는 명사구의 예다.

- (86) a. 한국은행, 은감원 분리에 반대
- b. 유럽연합, 북한에 식량지원 결정
- c. 화성 암석, 지구 것과 유사

이 문장유형은 동사구가 없으므로 Kornai and Pullum(1990)이 계승원리라 부르는 원리를 여기는 구성으로서 2.4에서 논의한 생산성이 낮은 통사 규칙의 또 다른 예가 된다.

7. 맺는 말

현대 통사 이론들에 의하면 모든 구는 부가어거나 보충어거나 머리거나 명세어이다. 이들 중에서 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특정한 구가 부가어이나 아니면 보충어이나의 문제인데, 한국어의 어휘소들 하나하나에 대해 각각의 하위범주화 목록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부

가어/보충어의 구분은 어떤 식으로든 행해져야 하는 작업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어 문법의 몇 가지 핵심적인 가정들을 받아들였을 때 동사들과 명사들이 갖는 하위범주화 목록들의 범위가 무엇인지를 밝혔다. 동사와 명사가 갖는 하위범주화 목록의 범위가 대체로 일치한다는 사실과 동사의 보충어와 명사의 보충어는 많은 문법적 성질들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소위 서술 명사에 대한 종전의 연구들과는 달리 의미 역할 (semantic roles, thematic roles)에 대한 언급 없이 서술 명사들의 분포를 기술하는 구구조 규칙의 체계를 얻는 과정에서 SUBCAT 자질과 COLLOC 자질을 동시에 채택할 필요가 있음을 논증하였다. COLLOC 자질의 값이 모두 다섯 가지라고 상정함으로써 소위 “가벼운 동사”라고 하는 것들에 **하** 이외에도 **하(상대 동사), 되, 내**를 포함시켰다. 이로써 **앞 바퀴에 핑크를 댔다나 영희한테서 십만원에 매입이 되었다, 그 문제하고 유사 하다** 등과 같은 동사구가 적절하게 생성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COLLOC의 값들 중 하나로 none이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다수의 명사가 하등의 “가벼운 동사”의 공기를 필요로 하지 않음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일본어의 소위 “가벼운 동사”에 대한 Grimshaw and Mester (1988)의 접근법은 서술 명사와 결합하는 후치사구들이 명사구의 직접지배 하에 놓이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달리 표현하면, 이 분들은 필자가 명사의 보충어라고 하는 성분들을 “명사구 외부의 논항”이라고 부르고 이들이 서술 명사를 머리로 갖는 명사구의 구성성분이 아니라고 본다. (일본어와 한국어는 이 부분에서 거의 전적으로 동일한 문법체계를 갖는 것으로 보이며 Grimshaw and Mester (1988)의 모든 분석기법은 한국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의도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 글에서 필자가 한국어 명사구의 구조로 여기는 것은 그대로 일본어 명사구의 구조로 여길 수 있는 것들이다.)

It is easy to show that in (3) all arguments are outside the object NP. They have the case marking of the verbal/sentential

system and not the nominal case marker *-no*, contrasting with the arguments in (4). They can undergo scrambling: for example, the NP marked with *-ni* in (31,c) can be placed after the NP marked with *-o*, giving a word order that is normal inside S but impossible inside NP, where the head Noun is always the last element.

이 글에서 필자가 애당초부터 부인하고 시작한 것은 바로 서술명사를 머리로 갖는 명사구 내부에 이 명사의 보충어가 있지 않다는 견해이다. 이제 필자가 제시한 한국어 명사의 문법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Grimshaw and Mester(1988)와 채희락(1996)이 주목하는 “명사구 내부 논항”이라는 존재에 관한 것이다. 필자의 체계 아래에서는 “논항”은 순수한 의미론적 개념이다. 따라서 보충어 아닌 부가어가 논항을 표현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며 **북한에의 식량의 제공**은 보충어가 억압된, 부가어가 딸린 구성으로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구성이다. 전자의 문법성과 양자의 동의성이 후자가 단일한 명사구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가정이다. 물론 문법의 어떤 장치로써 이 두 구성의 동의성을 포착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의문은 남아 있다. 이 문제는 다른 곳에서 다룰 성질의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 지적된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명사구 안에서 어떻게 머리인 명사가 구의 최후 위치가 아닌 곳에 놓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식량 제공을 북한에 하고**에서와 같이 서술명사 **제공**의 보충어인 **북한에**가 어떻게 **제공**보다 더 뒤에 등장할 수 있겠느냐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상세한 논의를 하기에는 지면의 제한이 절박하다. 그러나 이 현상은 “표류하는 양화사(floating quantifier)” 문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아마도 그러한 해결이 지극히 온당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밝혀 두고 싶다. 환언해서, **식량 제공을 북한에**가 단일한 구성성분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슬옹. 1992. “이른바 ‘품사 통용어’의 사전 기술 연구,” 사전 편찬학 연구 제4집. 서울: 탐출판사.
- 성광수. 1991. “국어 피동사 공백과 의사피동의 원인,” 이병근 서태룡 이남순 편 문법 I. 서울: 태학사.
- 엄정호. 1989. “소위 지정사 구문의 동사 구조,” 국어학 18.
- 채희락. 1996. “하의 특성과 경술어 구문,” 어학연구 32.4, 409-476. 서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최경봉. 1996. “명사 연결 구성의 해석 원리,” 언어 21.4, 1205-1227.
- 홍재성 외. 1997. 현대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 서울: 두산동아.
- Borsley, Robert D. 1991. *Syntactic Theory-A Unified Approach*. London: Edward Arnold.
- Chae, Hee-Rahk. 1995. “Clitic Analyses of Korean ‘Little Words,’” in T’sou, Benjamin and Tom Lai ed., *Language, Information and Computation (Proceedings of the 10th Pacific Asia Conference)*, 97-101. Hong Kong: Language Information Sciences Research Centre,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 Grimshaw, Jane and Arnim Mester. 1988. “Light Verbs and Theta Marking,” *Linguistic Inquiry* 19, 205-232.
- Keenan, Edward and Bernard Comrie. 1977. “Noun Phrase Accessibility and Universal Grammar,” *Linguistic Inquiry* 8, 63-100.
- Keenan, Edward. 1985. “Passive in the World’s Languages,” in Timothy Shopen,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243-28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ornai, András and Geoffrey K. Pullum. 1990. “The X-Bar Theory of Phrase Structure,” *Language* 66.1.

- No, Yongkyoon. 1991. *Case Alternations on Verb Phrase Internal Arguments*. Columbus, OH: The Ohio State University dissertation.
- Oh, Mira. 1991. "The Korean Copula and Palatalization," *Language Research* 27.4.
- Pustejovsky, James. 1995. *The Generative Lexicon*.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 Radford, Andrew. 1988. *Transformational Grammar-A First Cour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wicky, Arnold M. 1987. "Slashes in the Passive," *Linguistics* 25, 639-669.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
충남대학교 문과대학 언어학과
305-764
email: ynoling@hanbat.chungnam.ac.kr
FAX: +82-42-823-6010

접수일자: 1997. 8. 8.
게재결정: 1997. 10. 28.